



옛 글에서 찾은 사라져간 자연과 풍경들

1920~40년대 지식인들이 쓴 기행문 3년간 수집·정리 자연과 서민 생활상 살려내고 해설·감상·사진 덧붙여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한 정현모(1895~1964)씨는 1926년 9월 주왕산 대전사를 답사하고 글을 썼다. 정씨는 <잃어버린 풍경>에서 '주왕산 대전사의 절경은 세상에 떠돌고 병들고 약한 나에게 큰 위안을 줬다'고 술회했다. 사진은 이 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지누씨가 찍은 농무에 씌인 대전사 모습.

<잃어버린 풍경 1·2>는 옛날 기행문을 모았다. 그 기행문들은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당시 잘 나가던(?) 지식인들이 쓴 글이다. 1권은 서울에서 한라산까지 남쪽 땅을 여행한 것이고, 2권은 백두산과 그 일대 북녘땅을 둘러본 감상이다.

'우리땅 밟기'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이지누씨가 <개벽> <별건곤> <삼천리> 같은 옛 잡지를 현 책방에서 뒤지다 그 속에 흩어져 있는 이 기행문들을 발견하면서 이 책의 출판을 결심하게 됐다. 이 씨는 3년여동안 도서관의 신문자료와 인터넷 공간을 이리저리 뒤져가며 지금의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다듬었다. 여기에 글마다 해설과 감상, 그가 찍은 사진을 보았다.

<잃어버린 풍경1: 1920~1940 서울에서 한라까지>는 1920~1940년 사이에 남녘땅을 탐방한 작가들의 글모음이다. 이병기 이광수 한용운 나혜석 등과 같은 문인, 예술인, 언론인들이 당시의 명승지를 답사하고 쓴 열여덟 편의 기행문을 묶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벼농사를 짓는 독특한 모습, 주왕산 산 이듬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해인사의 풍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자연과 풍경과 사람들이 고스란히 등장한다.

'빛 고운 남색의 비단 허리띠를 내리쳐 놓은 것 같고 그 곁으로 서강가 공덕리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놓여 있는 초가집은 겨울의 마른 잔디같이 보

입니다. 마치 떼가 말라버린 무덤이 다다다다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이 스물 세 살 되던 1922년 12월 13일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 마포의 모습이다. 빠른 속도로 지나친 경복궁은 잡초 우거진 한산하고 쓸쓸한 모습이고 독립문 역시 외로워 보였다. 이날 그는 서울, 인천 상공을 19분 정도 비행했다. 하늘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곡에 비행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여류 화가 나혜석은 동강의 일엽 스님을 찾아 1938년 가야산 해인사를 찾았다. 경치도 경치지만 해인사 스님들의 생활에 눈이 먼져 갔다.

'교종인은 보통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마친 뒤 각자 지송하는 경전을 외운 뒤에 오전 6시30분경이면 조반을 먹는다. 그 후에는 각자 임무를 좇아서 종일 일과를 한다. 그중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인들은 종소리에 따라 집합하여 경전공부인 논강을 한다.'

<잃어버린 풍경 2: 1920~1940 백두산을 찾아서>는 수필가 민태원, 대은 스님, 언론인 이광구 그리고 러시아 문호 가린 미하일로브스키 등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여정으로 백두산을 답사한 네 편의 기행문이 중점적으로 실려 있다. 이 가운데서 가린의 백두산 탐승은 1898년의 기록으로서, 외국인이 본 구한말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고, 박금

의 '평평물을 찾아서'는 일제에 의해 자행됐을 화전민 혼락 소설이라는 기막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녀온 것을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린은 189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출발, 기자로 시베리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두만강을 경유, 조선에 첫발을 디뎠다.

경흥 회령 무산 등을 거쳐 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른 그는 "도저히 글로는 형용할 수 없고 사진으로도 전할 수 없으며 다만 그림을 그리는 붓이 필요할 뿐"이라는 말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천지에 오른 뒤에는 "호수는 마법에 걸린 듯 평온한 적막에 싸여 있고 우리와 다른 생명이 숨쉬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천지에 놀라기는 대은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내려다보는 순간 언어가 끊어질 뻔더러 생각조차 당면 비어 버리고 만다... 바위 색, 구름 빛 모든 색이 천지에 비쳐서 일렁거릴 때는 물빛조차 오색으로 변하여 가지각색의 온갖 빛을 다 보여준다.'

스님은 원래 백두산에 가려 했던 게 아니다. 불자였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수행한 설산을 동경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해 백두산을 제2의 설산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스님이었지만 천지를 내려올 때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천부단 누릴 수는 없는 범부라서 인간계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잃어버린 풍경 1·2 안창남의 지음 이지누 역임 호미 펴냄 | 각권 1만1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만들어진 전통 지은이 예탁 홀스봄의 5인 지음 박지향, 장문석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 2만5천원



이 책은 집단 정체성의 상징, 즉 문화적 정체성의 메타포를 구성하는 과정이 서구 근대성의 이데올로기적 결과물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통은 자의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개혁 내지 폐지의 대상으로서 비판적인 담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낭만적인 향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종종 서로 결합되어 서구 근대성의 특징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문화는 과거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리를 차지한다. 하나의 언어를 말한다든 사실, 혹은 이리저리러한 관습을 지킨다는 사실이 이처럼 커다란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했던 적은 없었다. 점차 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문화적, 특히 언어적 기준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표상되는 사회는 동시에 공통의 무언가, 즉 특징적이고 영원불변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렇듯 그러한 전통은 결코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된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사물은 새로운 사회적 집합체, 민족에 대한 동일시의 소속감의 상징으로 가능하며, 때론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화는 정신이면서 동시에 실체이다.

산업화의 산물 전통 이데올로기

이러한 역설은 마치 종교적 상징의 그것과도 같다. 인민의 정신을 위한 의식과 문화의 신성화가 신의 죽음이 선포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인민과 민족의 등장을 선포한 바로 그 순간에 출현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홀스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통이 대량 생산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시기에 벌어진 새로운 전통의 대량 발명은 산업 경제의 도래와 도시화, 국민국가의 대두와 새로운 사회 계급의 출현 속에서 매우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근대 정치 질서는 과거 왕정 질서와는 달리 더 이상 신성한 토대 위에 수립될 수 없었다. 나아가 노동 운동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광명 속에서 국가 구성원들의 복종과 충성심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대 민족국가가 의례와 레토릭 그리고 상징물을 필요로 했던 한편, 사람들은 변화의 급류 속에서 안정을 희망했다. 이 문제는 역사학적으로도 전통에 의거하는 방식으로, 즉 과거와 그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발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국가와 지배 계급은 의도적으로 신화와 민족의 상징을 생산했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공공 예식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족-그것은 인민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은 집단적 정체성의 생산과 개념 그리고 표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문학에서 시적화되었다가 과학 분야로 번져갔고 나중에는 아예 전통적인 양상의 운동으로 발전해 버리기까지 민족의 뿌리 찾기 운동은 객관적인 문화적 특징들(언어, 의상, 건축물)과 구체화된 관행들(춤, 노래 등)의 존재에 의해 규정되는 문화적 민족의 영원무궁함을 입증하려는 의지로 무장했다.

김삼미(중앙대 민족학과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핵심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백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백진반,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5. 12. 5 월·화·수·목반(주·야간반: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가 과정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약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녀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정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기문 명리학

(특강: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중
특별강의: 사주학, 기문문답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하시 하시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 1.대령/관육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정) 5.회심곡(화정) 6.구명시식 7.관음시식 8.점안 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사디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총사관음 20.총사영반 21.가사불사시식 22.신중작법39원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북청계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육건만다라선승대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회음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제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밤배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 남여 행사 모집합니다.